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99)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6 (3)서귀포지역도 예외 아니-(32)종합
서귀포 일대 日군사시설 실체 규명 성과

입력 : 2008. 04.24. 00:00:00



▲한라산 수악계곡 절벽위에 구축된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 암반을 뚫고 'ㄷ'형 구조로 돼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해안과 내륙, 오름-계곡 등에 무차별 구축 사령부 주둔지·자살특공부대 등 실체 확인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주둔 실체와 관련 베일에 가려져 있는 곳은 서귀포(구 서귀포시권) 지역이다. 특별취재팀의 3년 여에 걸친 탐사보도로 제주 서남부와 제주시(구 제주시권)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관심과 학계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과는 달리 이 지역은 여지껏 안갯속이다. 취재팀은 탐사를 통해 이 지역도 일본군들이 남겨놓은 63년 전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군제58배비개견도'에는 서귀포 지역 중앙부인 미악(쌀오름) 일대가 '복곽진지'로 구축됐다. 서귀포 지역 유일의 복곽진지인 것이다. 수악 일대는 '주저항진지'로 표시돼 있다.

또 다른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주도일본군배치요도'를 보면 미악에 108여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남쪽으로 4곳의 부대집단지역이 나타난다. 이 지도는 1945년 4월 중순에서 5월 하순 사이의 일본군 배치 및 군사시설 구축상황을 표시해놓았다. 이 지도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 중앙부는 '공격준비지대'로, 제주 서부는 '주진지대'로, 제주동부지역은 '유격진지'로 구분해 놓

고 있다. 그렇지만 6월에 접어들면서 서귀포 지역에는 108여단이 떠나고 96사단이 진주한다.

서귀포 지역은 이처럼 일본군 주력병력이 교체되고, 주둔기간도 비교적 짧지만 오름과 계곡 등지에는 갱도진지 등 군사시설이 어김없이 구축된 것이 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서(西)산벌른내 계곡 단애면 상부에서 찾아낸 갱도진지다. 한라산 정상 남벽에서 이어진 방해오름 서쪽에서 시작된 것이 서산벌른내, 동쪽이 산벌른내로 구분된다. 서산벌른내의 갱도는 고도 약 6백1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갱도는 3곳으로 10~20m 정도의 소규모다. 이곳의 갱도는 내부에 목재들이 무더기로 남아있는 등 여러모로 시선이 모아졌다. 이 지역은 108여단 사령부이자 '복곽진지'로 구축된 미악 일대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군 주둔상황을 입증해 준다.

한라산 수악계곡에서 확인한 갱도 역시 주목되기는 마찬가지. 10여m의 낭떠러지 위에 구축된 'ㄷ'형 갱도로 암반을 뚫고 만들어졌다.

서산벌른내와 수악계곡의 사례는 일본군이 오름이나 해안가 뿐 아니라 계곡과 하천에도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등 요새화 했음을 보여준다.



▲서산벌른내 상단부에서 찾아낸 갱도진지.

취재팀은 이승악에서도 일본군 갱도진지를 처음 찾아냈다. 이승악은 '주저항진지'인 수악과 신례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비교적 해안과 가까운 침오름과 영천악 등지에서도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갱도진지를 구축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삼매봉 해안에는 일본 해군의 자살특공정진지가 배치됐다. 취재팀은 이와 관련 일본측 자료를 통해 실제 삼매봉 해안에 일본 해군 제119진양대(震洋隊)가 주둔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진양대는 나무합판으로 만든 배에 2백50kg 정도의 폭약을 싣고 상륙하는 함정을 향해 자살공격 하는 것이 주 임무다. 진양대나 '카이텐'이라 불린 회천대(回天隊) 등은 '바다의 가미가제'(神風)에 비유된다.



▲이승악 갱도내부에서 취재팀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삼매봉 해안의 특공정진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날로 훼손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하루빨리 보호 관리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탐사와 문헌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그려보면 서귀포 지역은 내륙 깊숙한 곳에 '복곽진지'가 위치하고 바로 앞에 '주저항진지'가 위치하는 형국이다. 미약과 수악 일대는 서귀포 내륙지역의 중앙부를 차지한다. 이곳에 서면 서귀포 해안선이 한눈에 잡히고, 한라산이 위용을 드러낸다.

미약과 수악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4곳의 부대 집단주둔지가 자리한다. 이는 이승악과 생기악 등의 예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이어 해안과 가까운 철오름과 영천악 고근산 등지에는 '위장진지'가 구축돼 예상되는 연합군의 공격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서귀포 지역에 대한 집중탐사를 통해 드러난 실상은 63년 전 이 섬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본군 전쟁야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포커스]60여곳서 갱도진지 찾아내

취재팀이 그동안 탐사를 통해 확인한 서귀포 지역(구 서귀포시권)의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상태를 보면 14곳에서 모두 60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갱도진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수는 30여 곳 정도 된다.

서귀포 지역의 일본군 군사시설의 밀집도와 규모 등은 다르게 나타난다. 즉 같은 서귀포권이면

서도 111사단 주둔지인 녹하지악, 영아리오름 등은 밀집도가 높고 규모가 큰 반면에 이승악 미악 수악 영천악 칩오름 등 108여단과 96사단이 주둔지에는 소규모로 구축된 양상을 보인다.

삼매봉 해안에는 일본 해군의 특공정진지가 구축된다.

이러한 진지구축 양상은 서귀포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력부대의 이동 등 주둔기간이 짧았던데다 '공격준비지대'로 설정돼 제주 서남부로 연합군의 상륙할 경우에 대비한 후방기지 역할로 설정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 현황. ※ 괄호는 입구 함몰 갯도 수 포함한 전체 숫자 ▷ 이승악 1(2) ▷ 생기악 4(6) ▷ 수악계곡 1 ▷ 미악 1(1) ▷ 영천악 1(2) ▷ 칩오름 1(4~5) ▷ 서산별 큰내 3 ▷ 삼매봉 해안 12 ▷ 우보악 2(3~4) ▷ 구산봉 1(3) ▷ 대포포구 1(2) ▷ 영아리오름 1(5곳 이상) ▷ 녹하지악 4(15곳 이상) ▷ 모라이악 1(3)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